



부안군 평생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결실 맺어

부안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성과로 이어져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 오카리나반이 종강 연주회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 행안면 지사협,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카펫 전달

부안군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은진, 김홍우)는 지난 19일 동절기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용 1인 극세사 카펫을 지원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제 성덕면 성봉회, '산타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김제시 성덕면 행복복지센터는 성봉회(복지기동대)가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성덕초등학교에 방문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움 향한 정성, 책걸이 떡처럼 달콤합니다”

진안군 마령은빛문해반 어르신 15명, 떡 나누며 옛 서당 풍습 재현 · 특별한 상장 수여

진안군 마령면은 지난 19일 마령은빛문해반 어르신들이 한 해 교육을 마치고, 옛 서당의 전통을 살린 '책걸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지막 수업을 기념해 어르신들이 직접 무떡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으며 학업의 마침표를 찍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별 맞춤 교육을 자원봉사로 진행 해왔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배움을 망설이던 초보 어르신들도 큰 용기를 얻었다. 정장숙 강사는 “배움의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찾아오시라”며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전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진솔한 인생 표현한 시화 작품 전시회

'뽕뽕뽕 글씨에 담긴 큰 울림' 주제로... 26일까지 군산시청 1층 로비서 개최

군산시가 22~2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뽕뽕뽕 글씨에 담긴 큰 울림'이란 주제로 군산시늘푸른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뽕뽕뽕 글씨에 담긴 큰 울림'이라는 전시 주제는 낮은 나이에 글자 한 자 한 자 배우며 비록 뽕뽕뽕하지만 진솔한 인생을 표현한 시화 작품들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울림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구나 별도의 관람료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학생들에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바쁜 연말이지만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남원 소울 재가복지센터, 어르신께 방한용품 전달

남원의 소울 재가복지센터(센터장 강진구)가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로,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87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 상당의 혹한기 방한용품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주 유진기획 모유진 대표,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유진기획'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22일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방문한 모유진 대표는 “무주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인재육성에 보태게 돼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무주군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웃들을 살피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 진봉면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 추진

김제시 진봉면 행복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22일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증양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others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복극' (Bokguk)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복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